

---

## “여자가 아니라 수리전문가예요!”

---

김 경 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얼마 전, 우리집 에어컨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아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AS수리기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여성수리기사가 에어컨 작동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집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수리기사를 보자마자 남편은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나를 향해 “아니, 왜 여자가 왔데? 여자가 복잡한 전자제품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어?” 라며 소곤거렸다. 좁은 방안이라 말소리가 들렸는지 수리기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 었다. 그리곤 수리기사가 에어컨을 고치는 내내 의심의 눈초리로 수리 과정을 지켜보았다.

수리기사는 꼼꼼하면서도 꽤 상냥했다. 짧은 시간 내에 정확히 매뉴얼에 따라 똑 부러지게 에어컨을 수리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간 알지 못했던 전기세를 절약하는 디테일한 팁까지 가르쳐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못미더운지 수리기사가 돌아간 후에도 미심쩍은 표정으로 벽걸이에어컨 여기저기를 만지고 살펴보았다.

그런 남편을 향해 나는 “에어컨만 잘 고치면 됐지. 여자인 게 무슨 상관이야? 여자라서 제대로 못 고칠 것 같다는 건 당신 선입견이야.” 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남편은 “난 단지 여자가 제품을 수리하면 웬지 불안하고 미덥지가 않다고 한 것뿐이야.” 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왜 미덥지가 않느냐는 내 질문에 남편은 “과연 여자가 이 분야에서 남자들만큼 실력이 있겠느냐.” 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답변만 늘어놓았다. 수리기사를 그 분야의 전문가로 보기 이전에 여성으로 보는 시각이 제법 당황스러웠다. 남편은 자신이 성차별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수리기사가 다녀간 지 몇 시간 뒤 갑자기 벽걸이에어컨이 달린 벽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당황하는 내게 남편은 “거봐. 여자가 무슨 에어컨을 고친다고. 제대로 고쳤는데 왜 물이 흘러내리겠어. 난 여자가 왔을 때부터 영 마음에 안내키더라고!” 라며 고개를 저었다.

곧바로 남편은 흥분된 목소리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통화 끝에 “거기 남자수리기사는 없어요? 여자기사 좀 보내지 마세요.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다음날 남편이 요청한대로 남성수리기사가 집을 방문했다. 수리기사는 에어컨을 살펴보니 “혹시 펌프 쪽을 건드리셨어요?” 라고 물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네, 제가 어제 수리가 잘 됐나 여기저기 살펴봤거든요. 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라고 답했다.

알고 보니 어제 방문했던 수리기사가 고장 난 부분을 제대로 수리하고 간 후, 남편이 미답지 않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만지는 바람에 에어컨 펌프에서 꼭지가 빠져 벽에서 물이 샌 것이었다.

어제 방문했던 수리기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신이 실수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수리기사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미답지 않게 생각했던 걸 상당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처음부터 남편이 여성수리기사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았더라면, 수리기사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 짓지 않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수리전문가로만 생각했더라면, 여러 날에 걸쳐 우리 가족이 무더위로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여성수리기사도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로 불쾌함을 느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수리기사가 돌아간 후 남편을 향해 “당신이 무턱대고 여자라는 이유로 미답지 않게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봤기 때문이었네. 어제 온 수리기사는 여자가 아니라, 친절하고 능력 있는 수리전문가야.” 라고 말해주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오랜 세월 우리의 사고 속에서 뿌리 깊게 존재해왔다. 시대가 바뀌고 여성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자가 무슨’이라는 식의 차별과 편견은 지금도 여전하다. 특히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포진해있던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선입견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다.

모든 인간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권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